

조선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확산

이슬찬*

- I. 머리말
- II. 17세기 전반 청화백자 제작의 중단
- III. 17세기 중반 청화백자 제작의 재개
- IV. 17세기 후반 청화백자 사용의 확산
- V. 맺음말

I. 머리말

청화백자(靑畫白瓷)는 도자문화(陶瓷文化)의 정수(精髓)로서 특정한 시대와 국가가 지닌 도자문화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조선은 관요(官窯)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청화백자를 제작·사용하였으며, 청화백자는 고급 공예품으로서 국가와 왕실의 의례기(儀禮器)로 활용되었다.¹ 그러나 17세기 전반에는 관요에서 청화백자 제작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철화백자(鐵畫白瓷)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 17세기는 ‘철화백자의 시대’로 일

*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원

¹ 조선 청화백자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 시점이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에 따르면 <백자청화興寧府大夫人지석>이 제작된 1456년 무렵부터 청화백자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청화백자의 개시 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혜정, 『조선 전기 청화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2), pp. 28-35 참조.

컬어지며 도자문화의 침체기로 평가된다.²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청화백자의 제작이 재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화백자 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은 18세기 2/4분기 이후로 여겨진다. 17세기 관요 가마터에서 청화백자 제작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18세기 2/4분기에 운영된 금사리 가마터에서야 청화백자 제작이 뚜렷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³ 이는 현재 학계의 보편적 인식으로, 청화백자 문화의 확산은 금사리 가마터와 그 이전의 관요 가마터, 나아가 조선 중·후기 도자문화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화백자의 제작이 재개되고 그 문화가 확대되는 시점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을 설정한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기존 인식으로는 금사리 가마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한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갑작스레’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⁴ 고로 금사리 가마터 이전에는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극히 드물었다는 기존 견해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하여 17세기 중·후반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실증하고, 18세기 전반으로 이어지는 청화백자의 확산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피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에 앞서 용준(龍樽)을 중심으로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살펴본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⁵ 최건 선생은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문헌자료를 살피고, 현존하는 청화백자 용준의 양식을 분류, 편년을 재검토하여 17세기 청화백자 용준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청화백자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7세기 도자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2 최건 선생은 학계에서 ‘청화백자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7세기 도자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최건, 「청화백자에서 龍樽이 갖는 의미 - 특히 17, 18세기를 중심으로 -」, 『동양미술사학』 3 (2015), p. 93. 청화백자에 대한 연구가 대개 17세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시기에 대한 학계의 기존 인식을 반영한다. 박선경, 「朝鮮時代 17세기 전반기의 鐵畫白磁」, 『용인대학교 논문집』 15 (1998), pp. 903-926; 송인희, 「조선 17-18세기 청화백자의 특징과 성격 -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7 (2010. 9), pp. 77-110; 우민아, 「조선시대 관요 청화백자의 성격 변화」, 『미술사연구』 25 (2011. 12), pp. 241-273; 이현정, 「조선시대 청화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8).

3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중앙관요 지표조사보고서: 해설편』 (2000), pp. 295-309. 금사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는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1721년부터 1751년까지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1733년 12월, 관요의 이설이 논의되고 영조가 이를 윤허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금사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금사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를 18세기 2/4분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기록의 존재를 가르쳐 주신 경기도자박물관 장기훈 관장님께 감사드린다. 『承政院日記』 531冊(탈초본 28冊), 경종 1년 윤 6월 20일 13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769冊(탈초본 42冊), 영조 9년 12월 3일 26번째 기사.

4 금사리 가마터 이전, 즉 17세기 3/4분기~18세기 1/4분기 관요 가마터에 대한 무지(無智)가 청화백자 문화의 확산 과정을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5 최건, 「靑畫白磁龍樽의 성격과 전개」, 『笑軒鄭良謨先生八句記念論叢』 (2013), pp. 77-103; 同著, 앞의 논문 (2015), pp. 89-131.

도모했으나, 편년유물의 부족 때문인지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관요 가마터에 대한 연차별 정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17세기 후반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되었다.⁶ 17세기 후반에 운영된 여러 가마터에서 청화백자가 출토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로운 조사 성과에 힘입어 17세기 도자문화를 재인식해보고자 한다. 문헌기록과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이 중단, 재개, 확산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조망하고, 나아가 17세기 후반 청화백자 용준의 존재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Ⅱ. 17세기 전반 청화백자 제작의 중단

17세기 조선 사회는 임진왜란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또 다른 참화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관요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백자의 질적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⁷ 17세기 전반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앞선 시기와 비교해 태토에 잡물이 많고 유색이 회백색을 띠며, 전체적인 만듦새가 거칠다. 원료를 아끼기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 조질 백자의 굽 받침은 태토빚음에서 굽은 모래로 바뀌었으며, 한 번에 포개어 굽는 그릇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선 17세기 관요 백자의 질적 수준은 보다 시작적인 변화, 즉 청화백자의 부재(不在)와 같은 표현으로 개념화된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 청화백자의 제작이 중단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청화안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

6 이 조사는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에 대한 보존·정비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가마터 330여 곳 중 사적으로 지정된 79개소이다. 조사 면적의 30% 내외에 탐색갱(Tr.)을 배치하여 문화유적의 분포현황을 확인한다. 2019년 5월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57개소가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유물의 현황은 전체 양상 중 일부에 불과하며,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및 학술발굴조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관요는 16세기 중반부터 장인의 이탈과 관영수공업체제의 붕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까닭에 백자의 품질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조선 정부와 사용원은 백자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560년대 이후 관요에서 제작된 양질의 백자 중에는 굽 안 바닥에 유면음각으로 '左·右'명을 새긴 경우가 있다. 이는 좌변(左邊)과 우변(右邊)으로 대별되는 생산 집단 또는 책임자를 그릇에 표기하여 생산단계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정된다. 17세기에는 연달아 전란을 겪으면서 관요의 운영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때는 '左·右'명에 그릇을 생산한 연도와 월·일을 의미하는 '간지(干支)'와 '숫자'를 차례로 부가하였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이슬찬, 「조선 중기 관요(官窯) 운영체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8) 참조.

문으로 보인다.⁸ 청화안료의 원료인 산화코발트(cobalt oxide)는 국내에서 채취가 불가능한 광석이었다.⁹ 청화안료는 조선 전기 이래 중국을 통해 수입되었으며, 수입 방법은 전적으로 공무역(公貿易)에 의존하였다.¹⁰ 17세기 전반에는 전란으로 인한 조선 내부의 혼란과 재정 결핍, 그리고 명·청 교체기라는 대외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과의 사행무역(使行貿易)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청화안료의 수입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조선 정부는 청화백자 제작을 재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관찬 사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필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이른 기록은 광해 10년(1618)의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광해 10년(1618)에는 이미 청화백자의 제작이 중단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며, 조정의 연향(宴享)에 사용되는 화준조차 제작할 수 없었다.¹²

사용원은 청화백자 화준을 대체하기 위해 대개 '가화(假畫)'를 이용해 만든 '가화준(假畫樽)'을 사용했다.¹³ 조선은 명분과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적 예론에 따라 고급 공예품의 제작을 통제했다. 사용자의 위계에 따라 기물의 재질과 종류, 형태 등에 구별을 두어 사용한 것이다.¹⁴ 따라서 국가와 왕실 소용의 청화백자를 '가화준' 등 다른 성질의 것으로 대체한 것은 현실적 제약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가화준'은 비가 오면 물에 젖고 마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모양새가 구차하고 볼품없어 의례나 연향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항상 골칫거리였다. 이 때문에 사용원은 사가(私家)에서 전래되던 청화백자 용준을 구해다 쓰기도 하였는데,

⁸ 『光海君日記』 중초본 127卷, 광해 10년 윤4월 3일 2번째 기사.

⁹ 조선시대 백자 제작에 사용된 청화안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암미술관연구실, 『청화안료에 대하여』, 『조선백자전』 II (1985), pp. 75-79; 김혜정, 앞의 논문 (2017. 2), pp. 58-69 참조.

¹⁰ 『成宗實錄』 211卷, 성종 19년 1월 23일 3번째 기사.

¹¹ 우민아, 앞의 논문(2011. 12), pp. 243-244. 비사행무역(非使行貿易), 즉 밀무역(密貿易) 등을 통해 청화안료를 구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화안료가 왕실 공예품의 제작 등 매우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형(極刑)으로 다스리는 밀무역을 통해 청화안료를 수입해 진상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비사행무역에 대한 연구는 구도영, 『16세기 조선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 170 (2015. 9), pp. 177-223 참조.

¹² 『光海君日記』 중초본 127卷, 광해 10년 윤4월 3일 2번째 기사.

¹³ '가화(假畫)'란 무문의 백자 위에 어떠한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釉上彩] 또는 그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화'의 의미와 그 기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인희, 『조선 17세기 전반의 '假畫龍樽』, 『미술사논단』 38 (2014. 6), pp. 67-91 참조. '가화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光海君日記』 중초본 127卷, 광해 10년 윤4월 3일 2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1冊(탈초본 14冊), 인조 4년 윤6월 13일 7번째 기사;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인조 6년 9월 18일.

¹⁴ 최공호,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미술사학연구』 194·195 (1992. 9), pp. 77-88; 송인희, 앞의 논문 (2014. 6), p. 69에서 재인용.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이후에는 이마저도 모두 망실되고 더 이상 전세품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¹⁵

인조 4년(1626) 사용원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중국에 사행을 떠나는 역관(譯官)을 통해 완성품인 청화백자 ‘화룡준(畫龍樽)’ 한 쌍을 사오고자 했다.¹⁶ 그러나 역관들이 번번이 핑계를 대며 사오지 않아 청화백자 용준의 구득은 1630년대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사용원은 ‘석간주(石間硃)’로 문양을 그린 철화백자 용준을 제작해 사용하고자 했다.¹⁷ 철화백자 용준의 사용은 인조 12년(1634)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나, 이미 몇 년 전부터 ‘가화준’ 대신 철화백자 용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화준’의 문제가 부각된 1620년대 후반 무렵부터 이미 철화백자 용준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마침 1626~1627년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왕산리 가마터에서 〈백자철화운룡문호편〉(도 1)이 확인되어 당시 청화백자 용준을 대체해 사용되었던 철화백자 용준의 면모를 짐작케 한다.¹⁸ 〈백자철화운룡문호편〉은 전체적인 모양새가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국보 176호 〈백자청화弘治二年명송죽문호〉(1489)와 유사하여 조선 전기 입호의 조형 양식이 17세기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화안료를 사용해 정세한 필치로 문양을 시문하였으며 동체 중심부에는 사조(四爪)의 운룡문(雲龍文)을, 구연부에는 연판문(連板文)을, 저부에는 수파문(水波文) 또는 연판문을 장식하였다.¹⁹ 이 용준은 몸체 대부분이 유실되고 변조 과정에서 오그라들었지만, 문양의 필치나 전반적인 모습새가 국가와 왕실의 의례기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²⁰

¹⁵ 『光海君日記』 중초본 127卷, 광해 10년 윤4월 3일 2번째 기사; 『光海君日記』 중초본 174卷, 광해 14년 2월 16일 7번째 기사. 광해 11년(1619)에는 북경에 사행을 다녀온 사신단의 수행 화원 이홍규(李弘圭)가 청화안료를 무역해왔다는 기록이 있어 일시적으로나마 청화백자의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왕이 직접 이홍규를 포상할 만큼 당시 청화안료의 수입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인조반정으로 청화백자 용준이 망실된 이후로는 다시 ‘가화준’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光海君日記』 중초본 139卷, 광해 11년 4월 17일 1번째 기사.

¹⁶ 『承政院日記』 1册(탈초본 14册), 인조 4년 윤6월 13일 7번째 기사.

¹⁷ 『承政院日記』 2册(탈초본 43册), 인조 12년 5월 18일 4번째 기사.

¹⁸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 왕산리 요지 -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제2기숙사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2. 5). 왕산리 가마터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조선 중기 관요 가마터 중 하나로 추정된다. 왕산리 가마터의 성격과 운영 시기는 위의 보고서 및 이슬찬, 앞의 논문 (2017), pp. 70-72 참조.

¹⁹ 두 저부편은 각기 다른 기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²⁰ 왕산리 가마터 출토품과 달리 전세되어 현존하는 백자철화운룡문호는 대개 청화백자 용준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두 유형은 문양의 필치로 보나 양식으로 보나 여러모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유형의 철화백자 용준은 서로 다른 용처(用處)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논지를 구



도 1 용인 왕산리 가마터 출토 <백자철화운룡문호편>, 1626~1627년,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발굴(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 왕산리 요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제2기속사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2. 5), p. vii.)

‘가화준’과 철화백자 용준의 사용은 인조 16년(1638)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²¹ 가례도감(嘉禮都監)은 장렬왕후(莊烈王后, 1638~1649) 가례를 준비하며 전례에 따라 청화안료로 그림을 그려 ‘화준(畫樽) 한 쌍과 ‘백자청화주해(白磁靑畫酒海) 한 쌍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여파로 자기 제작이 중지되고 호조가 청화안료를 구하지 못하자, 사용원은 비축하고 있던 ‘철화백자 화준[石間朱畫樽大缸] 한 쌍과 ‘백준가화(白樽假畫) 한 쌍으로 청화백자를 대체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전반에는 청화안료를 구할 수 없어 국가와 왕실 의례기로 활용된 용준과 화준조차 청화백자로 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기록과 더불어 17세기 청화백자로 추정되는 전세 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는 17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청화백자 용준이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존 인식과 달리 청화백자 용준의 제작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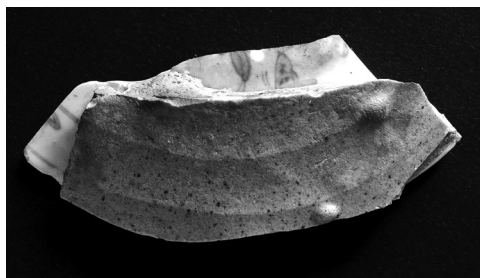
체화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백자용준’에 시문된 문양을 통해 그 용도를 추정 한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구혜인 선생은 ‘철화백자용준이 ‘청화백자용준과 더불어 왕실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 48 (2017. 6), pp. 7-34.

²¹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器皿色』, 인조 16년 10월 25일.

가능했던 상황은 17세기 전반(前半)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17세기 청화백자 용준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먼저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청화백자 제작이 재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17세기 중반 청화백자 제작의 재개

청화백자 제작이 중단되었던 상황은 1640년대에 이르러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인조 16년(1638)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화준’과 철화백자 용준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무렵에는 청화안료의 구득이 가능해졌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²³ 실제로 1640~1648년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선동리 가마터에서는 <백자청화‘祭’명접시>(도 2)와 <백자청화나비문편>(도 3)을 비롯해 여러 점의 청화백자편이 출토되었다.²⁴ 뒤이어 운영된 송정동 가마터(1649~1654년)에서도 여러 점의 청화백자편(도 4)이 확인되어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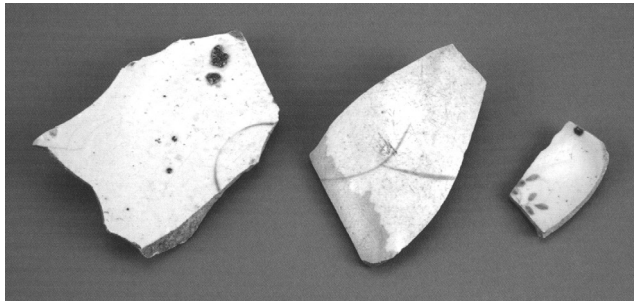
도 2 선동리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祭’명접시>, 1640~1648년, 저경 8.0cm, 이화여자대학교 발굴(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번천리 5호·선동리 2,3호-』, p. 180)

도 3 선동리 2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나비문편>, 1640~1648년, 잔존길이 13.4cm, 경기도자박물관 소장(경기도자박물관 제공)

²² 이러한 논지는 일찍이 최건 선생이 제시한 바 있다. 최건, 앞의 논문 (2015).

²³ 인조 23년(1645)에는 청나라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조공체제가 정례화(定例化)되었다. 이후 사행무역을 통한 청화안료의 수입이 원활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국학자료원, 2000), pp. 44-45; 유승주, 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경인문화사, 2002), pp. 15-70.

²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번천리 5호·선동리 2,3호-』(1986); 경기도자박물관, 『사적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번천리 8호·선동리 2호 요지 일원-』(2013. 10); 同著,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2016). 선동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는 이슬찬, 앞의 논문 (2017), pp. 73-74 참조.



도 4 송정동 2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접시·병·동체편>, 1649~1654년, 잔존길이 9.5cm(왼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립중앙박물관,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2014), p 45)

청화백자 제작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는 17세기 후반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득하다. 선동리, 송정동 가마터를 제외하면 17세기 관요 가마터에서 청화백자의 제작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세품 중에도 17세기로 추정되는 청화백자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연유로 현재 학계에서 청화백자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시점은 금사리 가마터가 운영된 18세기 2/4분기 이후로 여겨지고 있다.²⁷

그러나 최근 관요 가마터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²⁸ 17세기 후반 관요 가마터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차례 청화백자편이 확인된 것이다.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화백자가 확인된 17세기 관요 가마터는 선동리(1640~1648), 송정동(1649~1654) 가마터를 포함하여 1665~1676년에 운영된 것

²⁵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4), pp. 44-45. 송정동 가마터의 운영 시기는 이슬찬, 앞의 논문 (2017), pp. 74-76 참조.

²⁶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17세기에 청화백자가 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유물들의 편년을 18~19세기로 한정할 것일 테다. 필자는 현존하는 유물 중에도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예가 있다고 짐작한다. 차후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로 편년되는 청화백자들을 가마터 출토품과 비교하여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²⁷ 숙종 27년(1701) '여염집이라도 청화백자를 쌓아 두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사치한 풍속이 날로 심하여 이를 금하였다.'는 기록은, 17세기 후반 조선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극히 드물었다는 학계의 인식에 따라 중국산 청화백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청화靑畵, 푸른 빛에 물들다』 (2014), p. 23; 『承政院日記』 396冊(탈초본 21冊), 숙종 27년(1701) 3월 23일 19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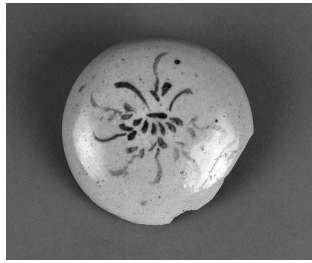
²⁸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정밀시굴조사 약보고서』 (2015. 10);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4차 정밀시굴조사 약보고서』 (2016. 5);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6차 정밀시굴조사 약보고서』 (2018. 12).

으로 추정되는 신대리 가마터,²⁹ 1677~1683년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월리 가마터,³⁰ 17세기 후반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궁평리 가마터이다.³¹

먼저 신대리 12·13호 가마터에서는 <백자청화문소발>(도 5)과 <백자청화초화문뚜껍>(도 6)이 출토되었다. <백자청화문소발>(도 5)은 내저면과 외면에 청화안료로 ‘~’처럼 생긴 문양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에 잡물이 있어 갑발을 씌우지 않고 한 점씩 구운 것으로 짐작된다. <백자청화초화문뚜껍>(도 6)은 환원소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짙은 회백색을 띠며, 청화안료의 발색도 온전치 못해 짙은 푸른색을 띤다. 한편, 신대리 12·13호 가마터의 맞은 편(남동쪽 150m) 구릉에 위치한 신대리 8·28호 가마터에서는 <백자청화초화문뚜껍>(도 6)과 유사한 유물이 철화백자로 확인되어 흥미롭다. <백자철화초화문뚜껍>(도 7)은 <백자청화초화문뚜껍>(도 6)과 동일한 기종, 형태, 문양을 지니고 있다. 다만, 철화안료로 문양을 시문했으며 안료의 특성 때문인지 좀 더 투박한 필치를 보인다.³²



도 5 신대리 12·13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문소발>,
1665~1676년, 높이 5.9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경기도자박물관 제공)



도 6 신대리 12·13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초화문뚜껍>,
1665~1676년, 잔존너비
7.2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경기도자박물관 제공)



도 7 신대리 8·28호 가마터 출토
<백자철화초화문뚜껍>,
1665~1676년, 잔존높이
7.4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경기도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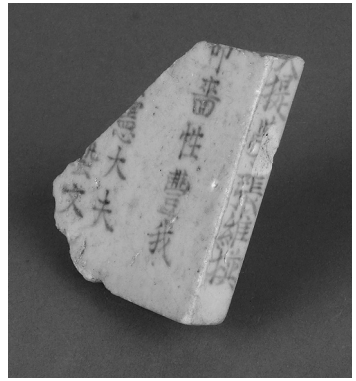
²⁹ 신대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는 이슬찬, 앞의 논문 (2017), pp. 77-79 참조.

³⁰ 지월리 가마터에서는 아직까지 운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편년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문헌기록과 유물의 출토양상을 통해 운영 시기를 짐작할 따름이다. 숙종 2년(1676) 기록 중 ‘내년 봄 분원(分院)은 이곳 탑립동(塔立洞)으로 이설하여 정함이 마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지월리의 구(舊) 지명 중 ‘탑립동’이 있어 지월리 가마터가 1677년 이후에 운영된 관요 가마터로 추정된다.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pp. 407-413. 지월리 가마터의 하한은 최근 조사된 궁평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를 통해 1683년 무렵으로 판단된다.

³¹ 유사리 가마터(1655~1664)를 제외하면 17세기 후반에 운영된 모든 관요 가마터에서 청화백자가 확인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자청화趙翼지석>(1660) 등 유사리 가마터 운영시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지석들이 존재하여 유사리 가마터에서도 청화백자가 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청화백자 지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V장 참조.

³² 신대리 12·13호 가마터에서는 가마 3기와 함께 9기 이상의 공방지와 수비공이 확인되었다. 이 공방지는 대규모

지월리 2·3호 가마터에서는 <백자청화李命俊지석>(도 8)이 출토되었다.³³ 이 지석은 잔존 부분이 매우 적지만, 청화안료로 쓰인 명문을 통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³⁴ 먼저 측면에 쓰인 ‘大提學張維撰’에 따라 이 지석의 묘지명은 장유(張維, 1587~1638)가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면에는 ‘命畜性豐我…憲大夫…藝文…’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장유의 문집인 『계곡집(谿谷集)』에 수록된 묘지명의 일부와 일치한다.³⁵ 이 묘지명은 이명준(李命俊, 1572~1630)에 대한 글로, 이명준의 생질(甥姪)인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장유에게 부탁하여 지은 것이다. 따라서 이 지석은 이명준의 것으로 판단된다. 찬자(撰者)와 피장자(被葬者)의 생몰년이 지월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와 상통하지 않는 것은 이 지석이 후대에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⁶



도 8 지월리 2·3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李命俊지석>, 1677~1683년 추정. 잔존길이 6.4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경기도자박물관 제공)

궁평리 1·2호 가마터에서는 <백자청화祭명접시>(도 9)와 <백자청화시명팔각연적>(도 10), <백자청화…文명연적>(도 11), <백자청화萬명편>(도 12)을 비롯하여 다종다양한 청화백자편

시설로 보아 12·13호 가마터뿐만 아니라, 신대리 일대에 위치한 다수의 가마터를 위한 시설로 판단된다. 따라서 12·13호 가마터와 8·28호 가마터에서 각각 다른 안료로 동일한 문양을 시문한 유물이 확인된 것은, 두 유물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³³ 지석(誌石)은 피장자의 행적, 조상과 자손의 이름과 내용 등을 기록한 묘지(墓誌), 묘지명(墓誌銘) 등을 새긴 판석(板石)이나 자판(瓷板)을 뜻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러한 지석을 묘지, 묘지명, 묘지석(墓地石)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묘지와 묘지명은 죽은 이의 이름과 신분, 행적과 더불어 죽은 이를 추모하기 운문(韻文) 등의 내용을 일컫는다. 이 논문에서는 물건으로서의 '지석'과 내용으로서의 '묘지', '묘지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지석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變化와 特徵」, 『미술사학연구』 271·272 (2011. 12), pp. 77-112 참조.

³⁴ 이 지석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데 도움을 주신 경기도자박물관의 김경중, 박성희 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³⁵ 『谿谷集』 10卷, 「有明朝鮮國嘉善大夫兵曹參判李公墓誌銘」, “…(전략) 祿短譽長, 命畜性豐, 我詩孔哀, 永列幽宮, (후략)…” 이명준의 문집인 『잠와유고(潛窩遺稿)』에도 그의 묘지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潛窩遺稿』 4卷, 「附錄」, 墓誌銘, “…(전략) 祿短譽長, 命畜性豐, 我詩孔哀, 永列幽宮,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世子右副賓客新豐君張維撰.”

³⁶ 후대에 백자 지석을 번조·매납하는 경우에는 대개 묘지명 마지막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부가된다. <백자청화李命俊지석>은 일부만 잔존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명준이 생전에 박장(薄葬)하기를 원해 '소여(素裹)에 장식을 하지 않고 외곽(外槨)과 명기(明器)도 생략한 채, 다만 석회로 회다짐하여 뭍혔다고 하여 처음에는 명기나 지석 등을 매납하지 않았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지석을 제작·매납했던 것으로 보인다.



- 도 9 궁평리 1·2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祭’명접시>, 1684~1702년 추정, 높이 3.5cm, 구경 18.0cm, 저경 8.0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경기도자박물관 제공)
- 도 10 궁평리 1·2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시명팔각연적>, 1684~1702년 추정, 잔존길이 8.0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경기도자박물관 제공)
- 도 11 궁평리 1·2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文’명연적>, 1684~1702년 추정, 잔존높이 6.0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경기도자박물관 제공)
- 도 12 궁평리 1·2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萬’명편>, 1684~1702년 추정, 잔존길이 5.0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경기도자박물관 제공)

이 출토되었다. 궁평리 가마터는 그동안 정확한 운영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에 이루어진 정밀시굴조사에서 각각 1684년과 1702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甲子’명 백자편과 ‘壬午’명 백자편이 확인되어 가마터의 운영 시기를 1684~1702년 무렵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백자청화‘祭’명접시>(도 9)는 편평한 내저면에 청화안료로 ‘祭’명을 시문하였으며, 다른 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굽을 지니고 있다. 내저면에 잡물이 내려앉아 있어 갑발을 씌우지 않고 한 점씩 번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祭’명 청화백자는 일찍이 선동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³⁸ 금사리 가마터에 이르면 제작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백자청화시명팔각연적>(도 10)은 팔각의 동체에 청화안료로 ‘…歷周秦…清波…’라는 시

³⁷ 이 외에도 1684~1702년에 해당하는 간지명 백자가 다수 확인되었다. 경기도자박물관, 앞의 책 (2018. 12), pp. 25-33, 136-138. 간지명 백자를 통해 추정한 궁평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향후 조사기판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³⁸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그릇 내저면 중앙에 청화 또는 철화안료로 ‘祭’명을 시문한 발, 잔, 접시 등을 통칭하여 ‘祭’명 백자라고 부르려 한다.

³⁹ 17세기 주자가례를 통한 예학이 보편화되고, 17세기 후반 사변의 성행과 함께 청화백자 문화가 확산되면서 금사리 가마터에 이르면 ‘祭·壽·福’명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詩句)를 적었다.⁴⁰ 이 시는 이서우(李瑞雨, 1633~1709)의 『송파집(松坡集)』에 수록된 칠언절구의 일부로, 연적의 아취를 묘사하고 있다.⁴¹ 『松坡集』은 이서우의 행적에 따라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어 개별 저작의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⁴² 이 연적에 쓰인 시는 이서우가 갑술환국(甲戌換局, 1694)으로 관직에서 쫓겨나 청계산 아래에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지은 작품들이므로, 1694년 이후의 저작으로 특정된다. 따라서 궁평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를 감안할 때 이 연적은 동시대의 시구를 적어 청화백자로 만든 사례로 생각된다.

이 연적과 유사한 사례들이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홍태유(洪泰猷, 1672~1715)의 문집 『내재집(耐齋集)』에는 그가 관요에 방문하여 그릇을 만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 홍태유는 이종사촌동생 임적(任適, 1685~1728)을 데리고 번조관(燔造官) 일을 맡아보던 이종사촌동생 조명종(曹命宗, 1677~1743)을 찾아갔다. 그는 조명종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구상한 모양대로 필통(筆筒)을 만들었다. 또한, 그는 이 사연을 글로 지어 필통에 시문하고 세 개를 만들어 이종사촌동생들과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⁴³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문집 『농암집(農巖集)』에는 그가 백자 지식과 각종 그릇을 만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 김창협은 기묘(己卯, 1699)년 여름, 선대의 지식을 번조하기 위해 관요 [廣州窯所]에 갔다.⁴⁴ 그는 백자 지식을 만드는 동안 필통, 연적 등 다양한 그릇을 함께 만들었는데, 각 기물마다 명문(銘文)을 짓고 시문하였다.⁴⁵

위의 사례들처럼 17세기 후반 관요는 사대부 계층의 취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기물들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요에서 주문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사번

40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1458호 <백자청화철화시명나비문팔각연적>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유물이 여러 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호림박물관 소장품이나 여타 유물들은 『송파집(松坡集)』에 수록된 시의 원문과 몇몇 글자가 상이하며, 좀 더 늦은 시기에 제작된 유물들로 판단된다.

41 李瑞雨, 『松坡集』 卷10. “有人呼韻賦硯滴, 詩云河濱遺法歷周秦, 吐納清波兩穴因, 形似玉山心貯水, 孰如其智孰如仁, 余亦戲次二首, 人文天與兆西秦, 汲引聲名四友因, 報主涓涓源派在, 兒孫千萬搃依仁, 完璧初疑免碎秦, 陶成道是火功因, 心肝瀝盡資靚巧, 四友咸歸一友仁.”

42 본문 중 작은 글씨로 첨가된 각주[雙行註]가 이서우 본인의 것이어서 저자 생전에 이미 저작의 수습 및 대략적인 편차(編次)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문집총간 해제 참조.

43 洪泰猷, 『耐齋集』 卷4, 「題沙筒」.

44 1699년은 궁평리 가마터의 운영 시기에 해당하므로, 김창협이 백자 지식을 굽기 위해 방문했던 관요는 궁평리 가마터로 판단된다.

45 金昌協, 『農巖集』 26卷, 「贊銘」. 제151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2019. 03. 12)에 『농암집(農巖集)』에 수록된 시구가 적힌 <백자청화시문필통>이 출품되었다. 필통에 적힌 시문 중 몇몇 글자가 원문과 상이하여 이 유물이 제때에 제작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문집의 내용이 실제 유물로 확인되는 시각자료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私燻)이 성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7세기 후반 사용원은 장인들에게 입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가포(價布)를 조달하지 못해, 공공연히 사변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였다.⁴⁶ 본디 허용된 사변의 범위는 조질의 일상그릇이었겠으나, 장인들이 사용원 관리와 결탁해 사대부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방구(文房具)나 지석 등 청화백자나 양질 백자를 번조해 이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⁴⁷ 이 같은 사변의 성행이 청화백자 문화가 확산되는 데 일조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다음 장에서는 편년유물을 통해 17세기 후반 청화백자 사용이 확산된 정황을 살펴보겠다.⁴⁸

IV. 17세기 후반 청화백자 사용의 확산

청화백자 문화의 확산이 18세기 2/4분기에 이루어졌다는 기존 인식과 다르게, 17세기 후반에는 이미 청화백자 문화가 확산 일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27년(1701)과 28년(1702)에는 ‘畵器[청화백자]’가 예전의 백자만큼 천해졌으며, ‘花磁器[청화백자]’를 사치하는 일이 날로 심해져 사대부뿐 아니라 하천(下賤)을 막론하고 사용을 금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다.⁴⁹ 실제 청화백자의 사용이 하층민까지 확대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같은 문제가 쟁점이 될 만큼 당시 청화백자의 사용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⁵⁰

46 17세기 후반 이전에도 종종 사변이 이루어졌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262冊(탈초본 13冊), 숙종 3년 11월 21일 11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370冊(탈초본 19冊), 숙종 23년 윤3월 2일 18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370冊(탈초본 19冊), 숙종 23년 윤3월 6일 11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380冊(탈초본 20冊), 숙종 24년 8월 27일 14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394冊(탈초본 21冊), 숙종 26년 11월 10일 9번째 기사. 조선 중기 관요 사기장의 입역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슬찬, 앞의 논문(2017) 참조.

47 17세기 후반 조세환(趙世煥, 1615~1683)이 쓴 『조세환일기(趙世煥日記)』에 따르면 관요에서 그릇을 주문 제작하려면 사용원 관리와 장인 모두에게 값을 치러야 했다. 『趙世煥日記』 1卷, 「癸丑五月往沙器所燻先世誌石日記」.

48 물론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빈번해지기 위해서는 청화안료의 원활한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17세기 후반 청화안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수입되었으며, 조선 전기와 비교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49 『承政院日記』 396冊(탈초본 21冊), 숙종 27년(1701) 3월 23일 19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406冊(탈초본 21冊), 숙종 28년(1702) 8월 10일 15번째 기사.

50 청화백자의 사용이 사대부 계층으로 확대된 사실을 청화백자 문화의 확산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청화백자가 조선 전기 이래 극히 제한적 계층과 용도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마저도 대개 국가와 왕실 의례기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전기 청화백자는 왕의 하사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대부 계층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고급 공예품이었다. 국산 청화백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편년유물이 많지 않아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청화백자를 실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백자 지식은 매납품의 특성상 현존하는 예가 많아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청화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가 된다. 따라서 17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제작된 청화백자 지식을 살펴보면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이 중단, 재개,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동안에는 백자 지식을 통해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청화백자 제작이 중단되었던 17세기 전반에도 청화백자 지식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던 까닭이다. 문헌자료와 실물자료가 상통하지 않아 백자 지식이 되레 혼동을 주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淑儀鄭氏지식〉(도 13)과 경기도박물관 소장 〈백자청화鄭廣敬지식〉(도 14), 대구카톨릭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金濤지식〉(도 15)이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청화백자 지식으로 확인되었다.⁵² 하지만 이는 이들 유물의 편년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실제 이 유물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淑儀鄭氏지식〉(도 13)은 1619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졌으나, 1581년에 제작된 예이다.⁵³ 묘지 내용에 따르면 숙의 정씨(淑儀 鄭氏, 1564~1580)는 1580년 6월 숙의(淑儀)로 간택되어 입궁하였으나, 그해 10월에 병을 얻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묘지명은 숙의 정씨의 부친인 정순희(鄭純禧)의 부탁으로 개성유수 윤근수(尹根

를 구할 수 없었던 이들이 중국산 청화백자를 수입, 사용해 그 욕구를 대신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사변을 통한 청화백자 제작이 활발해지고, 사대부 계층 전반으로 청화백자 사용이 확대된 17세기 후반을 청화백자 문화의 확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 전기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과 국산 청화백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정민,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 17 (2013. 7), pp. 31-5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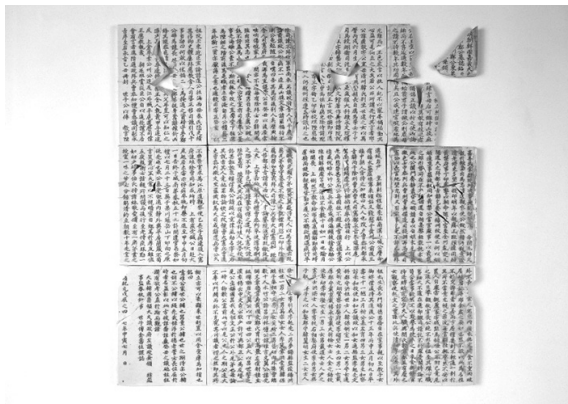
⁵¹ 백자 지식은 제작연도가 기록되어 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도자사 연구에서 중요한 편년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청화백자의 개시 시점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상응하여 조선시대 백자 지식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관련 전시도 이루어졌다. 박현민, 「조선시대 백자묘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2); 同著, 앞의 논문 (2011. 12), pp. 77-112; 오임숙, 「조선시대 誌石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2); 同著, 「朝鮮時代 誌石의 撰者에 대한 一考察」, 『석당논총』 59 (2014. 7), pp. 215-256; 同著, 「朝鮮時代 誌石函 연구」, 『문물연구』 26 (2014), pp. 155-180; 同著, 「조선시대 磁器製 器物形 誌石 연구」, 『석당논총』 63 (2015. 11), pp. 189-227; 국립중앙박물관,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 묘지명』 (2011). 가장 최근에는 〈백자에 담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도자인식과 백자부장문화를 다룬 전시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자박물관, 『백자에 담긴 삶과 죽음』 (2019. 4).

⁵² 박현민, 앞의 논문 (2004), p. 54, 123; 김세진, 앞의 논문 (2010. 2), pp. 154-155.

⁵³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1), p. 138.



도 13 <백자청화淑儀鄭氏지식>, 1581년, 20.5×25.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국립중앙박물관,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 (2011), p. 138)



도 14 <백자청화鄭廣敬지식>, 1674년, 15.5×20.8cm, 경기도박물관 소장(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

壽)가 지었다. 윤근수가 개성유수로 재임한 기간은 1579년부터 1581년까지로, 숙의 정씨의 물년과 상통한다. 그는 종3품 개성유수를 거쳐 종2품 공조참판, 정2품 예조판서, 종1품 판중추부사, 종1품 좌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이 지식에는 개성유수가 가장 높은 관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식의 제작 시기를 1581년으로 한정할 수 있다.⁵⁴

경기도박물관 소장 <백자청화鄭廣敬지식>(도 14)은 정광경(鄭廣敬, 1586~1644)의 무덤에서 출토되어 그의 물년인 1644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청화안료로 쓰인 묘지명을 통해 편년을 바로잡을 수 있다. 내용에 따르면 묘지명은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지

⁵⁴ 지식에 적힌 글귀 중 '1581년 1월 20일 과천 관악산에 장례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어 제작 시기 상한은 1580년이 아닌 1581년이다.

었다. 또한, ‘●禎紀元戊辰之四●七年甲寅七月日’라는 내용에 따라 이 백자 지석이 승정기원무 진년(崇禎紀元戊辰年, 1628)으로부터 47년이 지난 갑인(甲寅)년, 즉 1674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구카톨릭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金濤지석>(도 15)은 그간 누구의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채, 그저 1630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필자가 직접 실견하고 확인한 결과, 이 지석이 김도(金濤, 1617~1690)의 것이며 1770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⁵ 이 지석은 총 4장의 구성으로 청화안료로 글귀를 적었다. 마지막 장에는 ‘金鍾正 崇禎三庚寅仲夏燔埋’라는 내용이 있어 찬자와 제작연도가 함께 확인된다. 이 지석은 김도의 종현손(從玄孫)인 김종정(金鍾正, 1722~1787)이 묘지명을 짓고, 승정 기원후 3번째 경인년(1770) 여름에 번조하여 무덤에 매납하였다.⁵⁶

이 같은 검토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17세기 전반에 청화백자 지석이 제작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17세기 청화백자 지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예는 1660년에 제작된 <백자청화趙翼지석>(도 16)으로, 가마터 출토품을 통해 확인된 청화백자 제작의 재개 시점과 상통한다.⁵⁷ 이 외에도 경기도박물관 소장 <백자청화沈宗忱지석>,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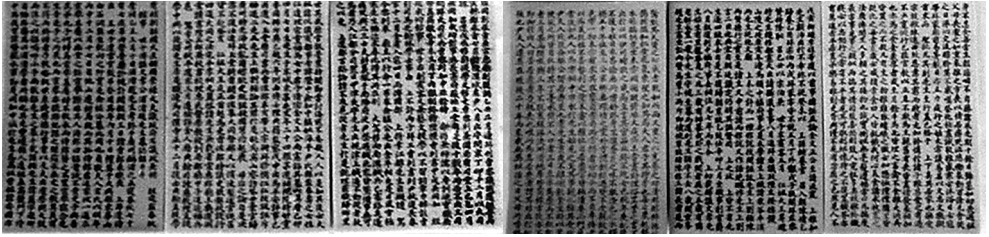


도 15 <백자청화金濤지석>, 1770년, 14.5×18.0cm, 대구카톨릭대학교박물관 소장(필자 촬영)

⁵⁵ 김도(金濤)의 생몰년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묘지와 문집의 내용을 통해 그가 萬曆丁巳(1617)년 11월 30일에 태어나 庚午(1690)년 11월 10일, 7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⁵⁶ 김종정의 증조부인 김간(金幹, 1646~1732)은 김도의 첫째 아들이었으나, 김도의 형인 김수(金洙)에게 자식이 없어 김수에게 입양되었다. 따라서 김도는 김종정에게 종고조부이자 본생고조부가 된다. 묘지명은 김종정의 문집 『운계만고(雲溪漫稿)』에서도 확인된다. 『雲溪漫稿』 10卷, 「墓誌」.

⁵⁷ <백자청화趙翼지석>은 조익(趙翼, 1579~1655)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총 16장이다. 묘지의 마지막에 ‘승정(崇禎) 경자(庚子, 1660)년 모월 모일에 문하생 파평(坡平) 윤선거(尹宣舉)가 찬한다’는 내용이 있어 1660년에 제작된 유물로 파악된다.



도 16 <백자청화趙翼지석>, 1660년, 14.3×21.5cm, 개인 소장(문화재청 홈페이지)

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孟喜지석>, <백자청화申昇지석> 등 총 26점의 청화백자 지석이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⁵⁸

17세기 청화백자 지석의 사용양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백자 지석의 시문 기법을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⁵⁹ 16세기 후반에는 청화백자가 24점, 철화백자가 15점, 음각백자가 10점으로 총 49점의 백자 지석이 확인된다. 다양한 시문기법이 사용된 가운데 청화백자 비중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청화백자 제작이 중단되었던 17세기 전반에는 철화백자가 11점, 음각백자가 5점, 점각기법으로 제작된 백자 지석이 2점으로 총 18점의 백자 지석이 확인된다.⁶⁰ 청화백자는 한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 수량도 18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나타낸다.

17세기 후반에는 청화백자가 26점, 철화백자가 11점, 음각백자가 1점, 동화백자가 3점으로

⁵⁸ <백자청화沈宗忱지석>은 1662년, <백자청화孟喜지석>은 1665년, <백자청화申昇지석>은 1665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을 실견,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신 대구카톨릭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및 여러 박물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⁵⁹ (표 1)은 이슬찬, 앞의 논문 (2017), pp. 108, 131~159의 (표 18)과 <부록 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인 17세기와 더불어 전후 반세기에 제작된 백자 지석의 제작양상을 살펴보았다. 백자 지석은 도굴이나 이장 등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무작위로 수집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들이 전체 양상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필자 역시 자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백자 지석의 수가 상당하고, 문헌자료나 가마터 출토품 등 여타 실물자료와 일치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계 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⁶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점각기법으로 제작된 조선시대 백자 지석은 <백자점각仁興君第三女지석>(1632)과 <백자점각仁興君第一子지석>(1632) 뿐이다. 이 지석들은 인흥군(仁興君, 1604~1651)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새롭게 지석을 번조하는 대신, 보관하고 있던 일상용기의 점시에 점각기법으로 글귀를 적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점시에 점각기법으로 명문을 새긴 태지가 있는데, 이 또한 모두 인흥군과 관련된 유물들이다. 따라서 일상용기에 점각기법으로 지석, 태지를 만드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짐작된다.

〈표 1〉 16세기 후반~18세기 전반 백자 지식의 시문기법

시문기법 제작 시기	청화	철화	음악	점각	동화	총합
16세기 후반	24	15	10	0	0	49
17세기 전반	0	11	5	2	0	18
17세기 후반	26	11	1	0	3	41
18세기 전반	60	7	0	0	0	67

총 41점의 백자 지식이 확인된다. 청화백자 지식이 다수 확인되어 17세기 후반 청화백자의 생산이 재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⁶¹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백자 지식은 총 67점이며, 그중 청화백자 지식이 60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때는 부모나 조부뿐 아니라 증·고조부, 멀게는 5대손 이상의 선대 묘역에 매장할 지식도 청화백자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화백자 지식의 제작과 사용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⁶²

지금까지 백자 지식의 제작 양상을 통해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이 중단, 재개, 확산되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앞서 확인된 사실을 통해 17세기 청화백자 용준의 존재를 유추해보고자 한다.⁶³ 17세기 전반 청화백자의 제작이 완전히 중단된 때에도 조선 정부가 청화백자 용준을 제작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화백자의 사용이 사대부 계층으로 확대된 17세기 후반에는 응당 청화백자 용준이 제작·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용준이 국가와 왕실 소용의 의례기로서 갖는 위상을 고려하면 청화백자 용준의 제작이 재개된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선동리 가마터(1640~1648)에서는 〈백자청화‘祭’명접시〉(도 2) 등 일련의 ‘祭’명 백자가 출토되었다. ‘祭’라는 명문은 금속기를 자기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상품이 아닌 ‘제기’라는 용도를 특정하기 위해 시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교적 예론에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⁶¹ 현종 14년(1673) 기록에서는 영릉(寧陵)을 이전(移轉)할 때 매장할 지식(誌石)을 청화백자로 번조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承政院日記』 234冊(탈초본 12冊), 현종 14년 7월 5일 12번째 기사.

⁶² 피장자와 제작자의 신분, 관직을 검토하면 청화백자 지식의 사용이 점차 더 넓은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⁶³ 그간 연구에서는 ‘17세기 청화백자 용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세우고, 현존하는 유물들을 분류·나열하여 편년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청화백자 용준 전세품 중에도 17세기에 제작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세기 청화백자 용준의 존재에 대한 검토는 최건, 앞의 논문(2013); 同著, 앞의 논문(2015) 참조.

그릇[瓷器]은 연기(燕器)로서 제사에 쓰면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⁶⁴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금속기를 대신해 사용되기도 하였다.⁶⁵ 특히 17세기 전반에는 거듭된 전란 탓에 제기의 소실이 잦고 물력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자기 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⁶⁶ 이러한 과정에서 '祭'명 백자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祭'명 백자는 제기 중에서도 속제(俗祭)에 사용된 각종 우리(于里)·우리대(于里臺)로 추정된다.⁶⁸ 속제는 관습이나人情(人情)에 따라 원묘(原廟), 진전(眞殿), 산릉(山陵)에 행해지던 제사로, 종묘제례 등의 정사(正祀)와 달리 연향과 동일한 유밀과(油蜜果), 다식(茶食), 약과(藥果) 등이 진설되었다.⁶⁹ 따라서 속제에는 보래변두(篋簋籩豆) 대신 일상적인 발·접시 형태의 각종 우리·우리대가 사용되었으며, 반상기 형태의 '祭'명 백자 또한 속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⁰ 선동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일련의 '祭'명 백자는 청화안료를 사용해 정세하게 만든 것이지만, 정사가 아닌 속제에 사용되는 기물이었으며, 이마저도 금속기의 대체재였다.⁷¹ 이러한 점

64 『宣祖實錄』 180卷, 선조 37년 10월 20일 5번째 기사.

65 일상용기에 명문을 새겨 제기로 사용하려는 노력은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다. 서울시 종로구 어영청지의 우물지에서 '天·地·玄·黃'명 백자에 '제기'나 '허니'를 점각기법으로 부가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그릇들은 본디 일상용기로 제작되었다가, 소비지에서 '제기(祭器)'라는 용도가 새롭게 부여되면서 '제기'를 뜻하는 '제기'와 '祭', '헌이(獻彝)'를 뜻하는 '허니'라는 명문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조선 전기 한글 명문이 있는 자기(瓷器)의 특징과 의미」, 『미술사와 문화유산』 1 (2012), pp. 149-151. 서울시 동대문 운동장 유적에서는 '黃'명 백자에 점각으로 '祭'가 부가된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운동장 유적』 II (2011), p. 218.

66 『宣祖實錄』 134卷, 선조 34년 2월 2일 1번째 기사; 『仁祖實錄』 17卷, 인조 5년 9월 27일 1번째 기사; 『仁祖實錄』 35卷, 인조 15년 6월 11일 3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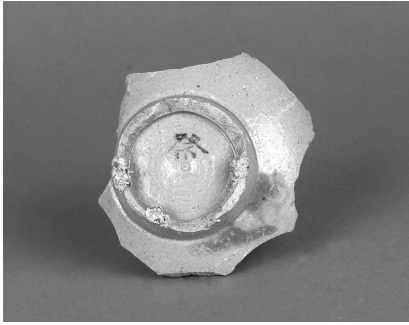
67 내저면이나 굽 안 바닥에 청화 또는 철화안료로 '祭'명을 시문하여 제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굽 안 바닥에 시문한 예는 학동리 가마터(1613~1617)에서 출토된 <백자철화 '祭'명발>(도 17), 내저면에 시문한 예는 상림리 가마터(?~1636)에서 출토된 <백자철화 '祭'명접시>(도 18)가 가장 이른 예이다.

68 안성희,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미술사학』 22 (2008. 8), pp. 26-28; 정다혜, 「조선 18~20세기 백자 고족접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8), pp.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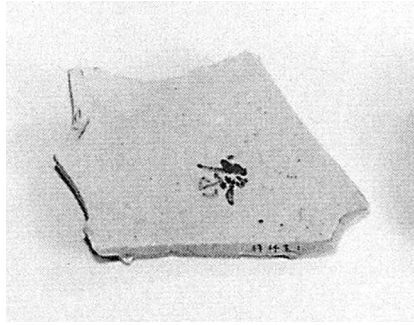
69 원묘의 경우 생시(生時)와 같이 섬긴다는 원칙에 따라 육선(肉饌)이 부가되었다. 강제훈, 「조선 초기 속제 제사상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 (2015), pp. 209-210.

70 선동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철화 '壽進宮祭'명편>처럼 '수진궁(壽進宮)'이라는 용처와 '祭'명이 함께 명시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수진궁은 봉작(封爵)을 받기 전에 죽은 대군(大君)이나 왕자(王子),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公主)·옹주(翁主)를 제사지내던 곳으로 속제의 영역에 속한다.

71 속제에 사용된 제기는 조선 전기의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선조 38년(1605)에 제작된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안성희, 위의 논문 (2008. 8), pp. 22-28. 조선 전기에는 속제에 사용되는 제기가 일정한 규범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임란 이후 소실된 제기를 복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야 규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 17 학동리 10호 가마터 출토 <백자철화祭'명 발>, 1613~1617년, 지경 5.8cm, 잔존높이 3.2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경기도자박물관 제공)



도 18 상림리 가마터 출토 <백자철화祭'명접 시>, ?~1636년 추정, 크기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관요: 도판편』(2000), p. 279)

을 고려할 때 '祭'명 백자는 용준이나 화준처럼 반드시 청화백자로 제작되어야 하는 기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례로서의 위계나 중요도가 낮다.⁷² 그러므로 '祭'명 청화백자의 존재는 선동리 가마터를 기점으로 청화백자 제작이 재개되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용준과 화준 등 국가와 왕실 소용의 의례기를 청화백자로 제작·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이 중단, 재개, 확산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사변의 성행과 함께 사대부 계층 사이에서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얼마나 빈번해졌는지를 밝혀 그간 청화백자의 공백기로 여겨졌던 17세기 도자문화를 재조명해보았다.

청화백자는 조선시대 도자문화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조선 전기 이래 국가와 왕실 의례기로 활용되었다. 17세기 전반에는 국가와 왕실 소용의 청화백자조차 제작할 수 없

⁷² 사치를 금하기 위해 회회청(回回靑)의 사용을 금했던 영조가 '畫龍樽'의 제작만큼은 허용했다는 점과 정조가 이러한 정책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통해 왕실 의례에서 청화백자 용준이 지닌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英祖實錄』82卷, 영조 30년 7월 17일 4번째 기사; 『日省錄』, 정조 19년 8월 6일; 구혜인, 앞의 논문(2017. 6), p. 8에서 재인용.

어 '가화준과 철화백자 용준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조선 17세기를 '철화백자의 시대'로 일컫고, 도자문화의 침체기로 평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청화백자의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청화백자의 제작은 1640년대를 기점으로 재개되었으며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다. 가마터 출토품과 문헌자료, 백자 지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7세기 후반에는 사변의 성행과 함께 사대부 문인 계층 사이에서 청화백자의 사용이 매우 빈번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부친이나 선대의 지식을 청화백자로 제작하는 한편, 발, 주병, 필통, 연적 등 문 다양한 기물을 제작·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7세기 후반 청화백자 용준의 제작과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17세기에 제작된 청화백자가 용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사대부 계층에서 청화백자가 널리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시기 국가와 왕실 의례기 또한 청화백자로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祭'명 백자의 용처와 의례기로서의 위계를 파악함으로써 청화백자 용준의 제작이 재개된 시점을 1640년대까지 앞당겨볼 수 있었다.

이는 금사리 가마터가 운영된 18세기 2/4분기 이후에서야 청화백자의 제작이 본격화된다는 기존 연구의 견해와 상반된 결과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조선 후기로 편년되는 청화백자를 대개 금사리, 분원리 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이에 따라 유물의 편년도 18세기 2/4 분기를 앞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확산되는 시점을 17세기 후반으로 앞당김에 따라 조선 후기 청화백자의 편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17세기 도자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관요(官窯, Royal Kiln), 관요백자(官窯白瓷, Porcelain of Royal Kiln), 청화백자(靑畫白瓷, Blue and White Porcelain), 철화백자(鐵畫白瓷, White Porcelain in Underglaze Iron-brown), 화룡준(畫龍樽, Blue and White 'Dragon' Jar), 용준(龍樽, 'Dragon' Jar)

■ 투고일 2019년 3월 3일 | 심사개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6일 ■

참고문헌

1. 사료

『谿谷集』.

『光海君日記』.

『國朝五禮儀序例』.

『耐齋集』.

『農巖集』.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宣祖實錄』.

『成宗實錄』.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松坡集』.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雲溪漫稿』.

『仁祖實錄』.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日省錄』.

『潛窩遺稿』.

『趙世煥日記』.

2. 한국어문헌

강재훈, 『조선 초기 속제 제사상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 2015.

경기도자박물관, 『사적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번천리 8호·선동리 2호 요지 일원-』, 2013.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정밀시굴조사 약보고서』, 2015.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4차 정밀시굴조사 약보고서』, 2016.

_____,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 2016.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6차 정밀시굴조사 약보고서』, 2018.

_____, 『백자에 담긴 삶과 죽음』, 2019.

구도영, 『16세기 조선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 170, 2015. 9.

-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48, 2017. 6.
- 국립중앙박물관,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 묘지명』, 2011.
- _____,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2014.
- _____,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중앙관요 지표조사보고서: 해설편』, 2000.
- _____,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중앙관요 지표조사보고서: 도판편』, 2000.
-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2.
- _____,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變化와 特徵」, 『미술사학연구』271·272, 2011. 12.
- 김혜정, 「조선 전기 청화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2.
- 박성경, 「朝鮮時代 17세기 전반기의 鐵畵白磁」, 『용인대학교 논문집』15, 1998.
- 박정민, 「조선 전기 한글 명문이 있는 자기(瓷器)의 특징과 의미」, 『미술사와 문화유산』1, 2012.
- _____,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17, 2013. 7.
- 박현민, 「조선시대 백자묘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송인희, 「조선 17-18세기 철화백자의 특징과 성격 -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67, 2010. 9.
- _____, 「조선 17세기 전반의 假畵龍樽」, 『미술사논단』38, 2014. 6.
- 안성희,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미술사학』22, 2008. 8.
- 오인숙, 「조선시대 誌石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2.
- _____, 「朝鮮時代 誌石의 撰者에 대한 一考察」, 『석당논총』59, 2014. 7.
- _____, 「朝鮮時代 誌石函 연구」, 『문물연구』26, 2014.
- _____, 「조선시대 磁器製 器物形 誌石 연구」, 『석당논총』63, 2015. 11.
- 우민아, 「조선시대 관요 철화백자의 성격 변화」, 『미술사연구』25, 2011. 2.
- 유승주, 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 이슬찬, 「조선 중기 관요(官窯) 운영체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8.
- 이현정, 「조선시대 철화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8.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번천리 5호·선동리 2,3호-』, 1986.
- 정다혜, 「조선 18~20세기 백자 고족접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8.
-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운동장 유적』Ⅱ, 2011.
- 최건, 「靑畵白磁龍樽의 성격과 전개」, 『笑軒鄭良謨先生八旬記念論叢』, 2013.
- _____, 「청화백자에서 龍樽이 갖는 의미 - 특히 17, 18세기를 중심으로 -」, 『동양미술사학』3, 2015.
- 최공호,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미술사학연구』194·195, 1992. 9.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 왕산리 요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제2기숙사부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2.
- 호암미술관연구실, 『조선백자전』Ⅱ, 1985.

국문초록

청화백자(靑畫白瓷)는 17세기 조선 사회가 여러 차례 혼란을 겪는 동안 제작이 중단, 재개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여 조선 17세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청화백자의 제작은 17세기 중반 재개되어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미 확산 일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청화백자 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은 18세기 2/4분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연구된 발굴 자료와 문헌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17세기 후반에는 이미 청화백자의 사용이 사대부 계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17세기 후반 문인 사대부는 일상기종을 비롯해 연적, 필통 등 각종 문방구나 지식을 청화백자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17세기 후반 청화백자 용준의 존재도 검토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17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청화백자 용준이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청화백자 용준의 제작이 불가능했던 상황은 17세기 전반(前半)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1640년대에 이르면 청화백자 용준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확산되는 시점은 17세기 후반으로 판단된다. 그간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청화백자를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고, 조선 후기 청화백자의 편년을 18세기 2/4분기 이후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17세기 후반 청화백자의 존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청화백자 편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17세기 도자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Manufacturing and Diffusion of Blue and White Porcelain in the Seventeenth Century of Joseon Dynasty

Lee, Seul-chan*

The produc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was temporarily halted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the Joseon society underwent war and disorder.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roduc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was spread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and argues that its production was resumed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and markedly increase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use of blue-and-white porcelain became popular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eighteenth century. However,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textual research show that it was already common among Joseon gentry to use blue-and-white porcelain as their tableware and stationery such as water droppers and brush holders by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Furthermore, blue-and-white 'dragon' jars also began to be produced from the mid-seventeenth century. In previous studies, it was argued that blue-and-white 'dragon' jars were not produced throughout the seventeenth century. However, this article shows that they began to be made no later than 1640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was sprea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It was chronologically divided into two periods in previous scholarship: the earlier period up until the second quarter of the eighteenth century and the later period for the rest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fully developed in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refore, the previous chronology of Joseon blue-and-white porcelain should be reconsidered.

* Curator, Gyeonggi Ceramic Museum